

# 제주도방언의 ‘호상옷(수의)’ 관련 어휘 연구

김순자\*

- I. 서론
- II.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 III. ‘호상옷’에 대한 제주민의 인식과 종류별 명칭
- IV. ‘호상옷’의 부분 명칭
- V. ‘호상옷’의 바느질법 관련 어휘
- VI. 결론

## 국문요약

‘호상옷’은 ‘염습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을 말한다. 표준어 ‘수의(壽衣)’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사람과 지역에 따라 ‘호상’ 또는 ‘저승옷’이라고도 부른다. 이 논문은 사라져가는 제주의 언어 유산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상례와 관련된 제주도방언의 ‘호상옷(수의)’ 관련 어휘를 종류별 명칭과 부분 명칭, 바느질법 관련 어휘 등으로 나눠 살폈다.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방언의 ‘호상옷’은 일상 옷 가운데 가장 갖춰 입었던 ‘혼례’ 때의 옷차림에다가 ‘대렴’ 때 필요한 제구(諸具)인 ‘갓은수의’로 이루어진다. 둘째, ‘호상옷’ 관련 어휘 중 옷가지의 명칭은 한자어보다 고유어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부속물은 예전과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고유어 사용이 늘고 있다. 셋째, 부분 명칭에서는 제주도방언의 특징인 문헌어와 특이 어형을

---

\* 제주대학교 강사, 국어학.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어휘 가운데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도 있어 새 어휘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바느질법 관련 어휘인 ‘손바농질, 뒷바농질, 텅침, 동근술’ 등 ‘침선’ 관련 특이 어형을 새롭게 소개했다.

제한된 지면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호상옷’ 관련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호상옷, 제주도방언, 상례, 시신, 바느질법.

## I. 서론

‘호상옷’은 ‘염습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이다. 표준어 ‘수의(壽衣)’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사람과 지역에 따라 ‘호상’ 또는 ‘저승옷’이라 부른다. ‘호상(護喪)’은 『표준국어대사전』에 “「1」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핌. 「2」장례에 참석하여 상여 뒤를 따라감. 또는 그런 사람. 「3」=호상차지.”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호상’의 의미 외에도 ‘호상옷’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생활양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서 전통생활 양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전통문화를 중시했던 장례도 집이 아닌 장례식장 등에서 치르면서 장례 문화도 바뀌고 있다. 장례 문화의 변화는 곧 ‘호상옷(수의)’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호상옷’을 직접 장만하거나 만들어 입혔지만 요즘은 수의전문점 등에서 사서 입히는 게 일반적이어서 ‘호상옷’ 관련 어휘도 점차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염습제도는 3~4세기에 도입된 중국의 유교 사상에 의하여 『예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고려 말 주자학의 도입 이후 14세기부터 주희의 『가례』가 본격적인 조선시대의 예의 기준이 되었다. 조

1) 이 글에서 ‘호상옷’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침선장』(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의 분류법에 따라 ‘갓은수의’와 ‘남자수의’, ‘여자 수의’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했다. ‘갓은수의’는 남녀 공히 필요로 하는 수의이고, ‘남자 수의’는 남자 시신에 입히는 옷, ‘여자 수의’는 여자 시신에 입히는 옷을 말한다.

선 성종 1년(1470) 불교식 화장금지와 성리학식 상례와 매장을 권장하였고, 성종 2년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성리학식 상장례(喪葬禮)가 포함되었다. 성종 5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완성에 따라 사서인(士庶人)의 상례 절차 및 그에 따른 연습의·연습제구를 신분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수의(壽衣)라는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오는 때는 광해군 즉위년(1608)이다. (중략) 수의는 조선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옷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생시의 예복을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조선재봉전서』 이후에는 대·소렴을 통틀어 수의라고 기록하고 있어 치관제구(治棺諸具)가 포함되었음.)<sup>2)</sup>

문헌 자료에서 ‘수의’가 소개된 것은 조선 초기 『국조오례의』(1477)에 ‘남자 수의’ 종류와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다. 조선 중기의 『상례비요』(1621)와 조선 후기 『읍혈록』(1771, 1798)<sup>3)</sup>과 『사례편람』(1844)에는 ‘남녀 수의’가 소개되었다. 『읍혈록』은 조선 영·정조 때 윤행입(1762~1801)이 아버지 윤희의 상에 관한 기록(1771)과 모부인 한양 조씨가 상을 당했을 때 시말을 적은 기록(1798)으로, 이 기록에는 수의를 포함한 상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담겨 있어 조선시대 상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수의’ 각각에 대한 재료와 개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아 종합적인 ‘수의’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의복과 재봉 방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1925)와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침선장 정정완의 『침선장』(1998)에는 ‘수의’의 명칭뿐만 아니라 우리 옷 만드는 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조선재봉전서』에 소개된 ‘수의’는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류사회에서 보통으로 하는 것을 표준’<sup>4)</sup>으로 한 것이다. 이 두 자료 또한 제주 지역의 ‘호상옷’ 관련 어휘를 고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헌 속의 수의 명칭은 <표 1>과 같다.

2) 문옥균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IV)-상례편(3)』, 고서자료총서 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68쪽.

3) 『읍혈록』의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원(2000)의 『조선시대 관혼상제(IV)-상례편(3)』에 영인되어 소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4) 김숙당, 『조선재봉전서』(영인본), 민속원, 1925/1995, 178쪽.

<표 1> 문헌 속의 수의 명칭<sup>5)</sup>

출처	남자 수의	여자 수의
국조오례의(1447)	대대(大帶), 흑원령(黑圓領), 담복(蔞複), 철릭(帖翼), 과두(價渡), 한삼(汗衫, 고袴), (襪), 망건(網巾), 복건(幅巾), 충이(充耳), 명목(冥目), 악수(握手), 이(履)	기록 없음
상례비요(1621)	대대, 심의(深衣), 담호(蔞屨), 과두, 포오(袍叻), 한삼, 고, 단고(單袴), 늑백(勒帛), 말, 망건, 복건, 명목, 충이, 악수(握手), 이, 모(冒)	심의, 원삼(圓衫), 몽두의(蒙頭衣), 장오자(長叻子), 포오와 상(裳)을 병용. 이 대신 채혜(彩鞋)
읍혈록 <sup>6)</sup> (1771, 1798)	설면자(雪綿子), 명목(冥目), 악수(握手), 풀의(茯苓衣), 대대(大帶), 조대(條帶), 폭건(幅巾), 망건(網巾), 중적막(中赤莫), 장의(長衣), 적삼(赤衫), 단고(單袴), 고(袴), 요대(腰帶), 말(襪), 다임(多紅), 행진(行纏), 운혜(雲鞋), 육(襪), 침(枕), 금(簪), 천금(天簪), 낭(囊), 엄포(嚴布)	설면자(雪綿子), 명목(冥目), 악수(握手), 여모(女帽), 충이(充耳), 단삼(單袴), 단고(單袴), 고(袴),赤水(지고리3), 청홍상각일(靑紅裳 各一), 요대(腰帶), 원삼(圓衫), 대대(大帶), 과두(蒙頭), 말(襪), 이(履), 금(簪), 엄포(嚴布) 20자(嚴布 二十尺), 육(襪), 침(枕), 금(簪), 천금(天簪), 낭(囊), 엄포(嚴布)
사례편람(1844)	복건, 망건, 심의, 단령(團領), 담호, 직령(直領), 대(帶), 과두, 포(袍中赤莫, 冬衣), 한삼(汗衫, 的衫), 고, 단고, 소대(小帶-腰帶), 늑백, 이, 충이, 명목, 악수(握手), 말, 모	엄(掩-머리싸개), 이(裯-머리싸개), 심의 흑연의(綠衣) 혹은 원삼, 장오자(長衣), 대, 삼자(衫子), 포오(袍叻, 저고리 3칭), 소삼(小衫의衫), 과두(허리띠), 상, 고, 단고, 채혜, 충이, 명목, 악수(握手), 말, 모
조선제봉전서(1925)	저고리 2, 바지, 고의, 겹옷, 증추막, 학창의, 띠, 비선, 허리띠, 대님, 복건, 과두, 복과, 망건, 면모, 악수, 속발단기, 현운, 신, 영, 디오, 베개, 대렴, 소렴	회장저고리, 분홍저고리, 속적삼, 남치마, 홍치마, 단상, 단속깃, 바지, 원삼, 당의, 대 소렴금, 디오, 베개, 비선, 현운, 천금, 엄오, 두슈, 단기, 면모, 악수, 내공오랑, 신, 영
침선장(1998)	속고의·적삼, 겹바지·겹저고리, 겹두루마기, 도포(道袍) 또는 학창의(鶴掌衣)(또는 심의(深衣)), 허리 띠, 행진(行纏), 복건(幅巾), 현훈(玄纁)	베 속적삼(홀깃), 저고리 삼작(분홍 속저고리·노랑 삼희장 저고리·연두 회장저고리), 겹치마, 원삼, 속속곳(홀깃), 겹바지, 너른 바지, 무지가·대습, 여모
	같은 수의(남녀 공용): 소렴금(小嚴簪), 대렴금(大嚴簪), 엄포(嚴布), 천금(天簪), 지요(地袴), 베개, 과두(裹肚), 명목(冥目), 악수(握手), 비선, 오랑(五囊), 신	

<표 1>의 문헌 자료를 보면, ‘수의’ 명칭은 조선 중기까지는 한자어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조선 후기 들면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수의’ 종류와 명칭도 시대 변천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 5) 문헌 속의 수의 명칭 중 『국조오례의』, 『상례비요』, 『사례편람』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1)의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 6) 『읍혈록』에는 습, 소렴, 치관, 입관으로 나뉘어 시신에게 소용되는 호상옷 관련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신에게 소용되는 수의 관련 자료를 뽑아 <표 1>에 정리하였다. 『읍혈록』에 남자 저고리를 ‘적삼(赤衫)’이라고 기록한 것과 달리 여자 저고리는 ‘적고리(赤古里)’라고 고유어를 음독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을 보면 조선 후기 들면서 고유어 명칭도 병행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은 『읍혈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1771년의 남자 수의로 한자 명칭 ‘적삼(赤衫)’이 보이는 데 반해 27년이 흐른 1798년의 여자 수의에서는 ‘저고리[赤古里]’처럼 우리말을 이두로 표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재봉전서』에서는 ‘옷가지’ 종류로 ‘저고리, 바지, 남치마, 단속것, 겹옷, 썩’처럼 고유어가 많이 보인다. ‘갓은수의’의 경우는 『국조오례의』에 보였던 ‘악수’, ‘복건’, ‘과두’, ‘면모’, ‘악수’ 등의 한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장례 풍속이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의’의 종류와 명칭도 달라졌다. 제주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유교 사상에 입각한 상례에 따라 제주 지역 상례도 전통 속속에 맞게 변모해 왔다. 제주 지역의 독특한 복식이라고 하면, 통과의례에서 볼 수 있는 신생아에게 3·7일 옷으로 입히는 ‘붓디창옷’<sup>7)</sup>,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소중의’<sup>8)</sup>, 노동복 ‘갈옷’<sup>9)</sup>,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갈 때 입는 ‘호상옷’과 상제들이 입는 ‘상복’에서 찾을 수 있다. ‘붓디창옷’은 현대화한 배내옷이 나오면서 자취를 감추었고, ‘소중의’는 ‘고무옷’이 나오면서 자료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옷이 되었다. 상복도 생활양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삼베로 만든 한복 대신에 검정색 양복이나 검정 한복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나마 시신에게 입히는 ‘호상옷’의 경우는, 간소화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호상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고령층에 국한된 데다 제주시 향토무형유산 제3호 ‘수의와 부속품 제작’ 기능인이 운영하는 ‘수의 작업장’이 문을 닫으며 ‘호상옷’ 제작 기능 전수가 어렵게 되면서 ‘호상옷’과 관련한 어휘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전래되는 ‘호상옷’ 관련 어휘를 ‘옷가지’와 ‘갓은수의’로 나누어 그 종류별 명칭과 부분 명칭, 바느질법 등

- 
- 7) ‘붓디창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시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배옷’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배창옷’, ‘붓땃옷’, ‘붓땃창옷’, ‘붓땃옷’, ‘붓땃적삼’, ‘붓 옷’ 등으로 불린다. {붓+땃+창옷}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다. 여기에서 ‘붓’은 태의 제주도방언이고, ‘-땃’는 처소격조사다.
  - 8) ‘소중의’는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으로 만든 옷이다. 지역에 따라서 ‘소중기, 속곳, 물옷’ 등으로 부른다.
  - 9) ‘갈옷’은 ‘무명이나 베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인 옷’으로,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복을 말한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감옷’이라고도 한다.

과 관련된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필요한 경우는 국어학적 해석도 곁들인다. 제주 지역의 ‘호상옷’ 관련 어휘를 체계화하고 ‘호상옷’ 관련 새 어휘를 찾아 기록하는 것은 국어 어휘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 II.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제주 지역의 ‘호상옷’ 관련 연구는 김영돈(1973), 김동욱·고부자(1974), 고부자(1985), 김순자(2002), 강정희·김순자(2009)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김영돈(1973)은 민속학적 측면에서 제주 지역의 통과례를 조사하면서 ‘호상옷’, ‘검은호상’, ‘두름포’, ‘소랑’, ‘과디’, ‘천금’, ‘지금’ 등 ‘호상옷’ 관련 어휘를 소개하였다.

김동욱·고부자(1974)는 제주도의 ‘호상옷’의 가짓수를 석주선의 『우리나라 옷』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 15군데에서 ‘호상옷’을 조사하여 남녀 수의 명칭을 정리하였다. 여자 수의 품목으로 ‘나삼(원삼), 과두, 바지, 지금, 천금, 맹전, 오색한삼, 버선, 악수, 설맹지, 맹목, 소낭, 땡기, 현훈, 저승돈, 속중의, 속치마, 겹치마, 저고리’ 등을, 남자 수의 품목으로 ‘도복, 악수, 명목, 대렴포, 버선, 바지, 저고리, 과두, 오낭, 창옷(두루마기), 저승돈’을 소개했다.

고부자(1985)는 남자 호상옷과 여자 호상옷으로 나눠 호상옷 입는 순서와 특징 등을 소개하는 한편 연습 때 필요한 제구 등도 함께 제시해 놓았다.

김순자(2002)는 신문 기획 연재물에 ‘수의 기능인’을 소개하면서 호상옷의 종류와 명칭에 대해 다루었고<sup>10)</sup>, 강정희·김순자(2009)는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호상옷’ 관련 어휘를 국어학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sup>11)</sup> 향토무형유산 제3호 ‘수의와 부속품

10) 김순자(2002)는 『제민일보』(2002. 2. 22)의 기획 연재 「脈-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수의 기능인 김정생 할머니’를 통해서 ‘호상옷’과 부속물 28가지의 명칭과 호상옷에 얽힌 이야기 등에 대하여 다룬 바 있다. 이 자료는 김순자(2006)의 『제주의 삶과 문화를 잇는 사람들-와치와 바치』에 다시 수록되었다.

제작 기능인’ 김정생의 구술 자료와 ‘호상옷’의 종류, 부분 명칭, 재료, 바느질법 등과 관련한 어휘가 체계있게 정리됐다.

〈표 2〉 제보자와 조사 정보

이름	성별	출생 연도	주소	조사 연월	비고
허순화	여	1932	구좌읍 송당리	2005. 8.	작고
홍진규	여	1915	애월읍 수산리	2006. 6.	
김홍은	남	1937	남원읍 태흥1리	2006. 7.	
김정순	여	1932	애월읍 하귀2리	2007. 7.	
고순여	여	1926	제주시 이호2동	2007. 8.	
김경생	여	1921	제주시 삼도1동	2009. 8.	
현군식	여	1926	남원읍 남원리	2009. 6.	
김성욱	남	1926	한경면 조수2리	2013. 12.	
이옥춘	여	1932	한경면 조수2리	2013. 12.	
이수성	여	1931	조천읍 와흘리	2014. 2.	

그동안 제주 지역의 ‘호상옷’ 관련 연구는 “기록에 의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여서 남아 있었던 약간의 실물자료와 高老들의 경험담이나 조상들에게 전하여 들은 것을 다시 들려주는 口傳자료”<sup>12)</sup>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문헌 자료와 제주 지역의 나이 많은 토박이 제보자들의 구술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주 지역의 ‘호상옷’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허순화(2005), 홍진규·김홍은(2006), 김정순·고순여(2007), 김경생·현군식(2009), 김성욱·이옥춘(2013), 이수성(2014) 등 10명의 제보자의 구술 자료와 기존의

- 11) 본고는 김경생(2009)의 자료에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호상옷’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새롭게 논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 12) 고부자, 「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호상옷과 상복」, 『제주도연구』 제2집, 1985, 101쪽. 고부자는 이 논문에서 제주도 복식의 변천 과정을 해방 이전까지를 제주도 고유복식의 하한기로 잡고, 해방 전후 10여 년간을 혼용기로, 그 후는 쇠퇴기로 잡고, 제주 토착민의 전통 복식 형태는 해방 전후 외래에서 유입된 복식의 혼용기까지의 형태로 잡고 있다. 제주도의 ‘호상옷’의 경우는, 예전과 달리 옷감의 색깔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금도 전래 방식대로 짓고 있어 제주도 옛 복식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김경생·김정순·고순여·홍진규 구술 자료<sup>13)</sup>는 이미 발표된 자료이고, 허순화·김홍은·현군식·김성욱·이옥춘·이수성의 자료는 미발표 자료다. 이 글에서는 10명의 구술 자료와 『조선재봉전서』·『침선장』 등 문헌의 수의 자료와 비교하며 제주도방언의 ‘호상옷’ 관련 어휘를 고구하려고 한다.

<표 2>는 제보자와 조사 정보다.

### Ⅲ. ‘호상옷’에 대한 제주민의 인식과 종류별 명칭

#### 1. ‘호상옷’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인식

“제주에서는 ‘살앙 호사 흔 번 죽엉 호사 흔 번’라는 말이 전할 정도로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갈 때는 ‘호사’하는 것처럼 ‘호상옷’에 신경을 썼다. 여자의 경우는 혼인할 때 입었던 원삼을 환갑 때 다시 입고 잘 간수하여 두었다가 호상옷으로 삼았다. 남자의 경우는 혼인과 환갑 때 입었던 도포를 수의로 입혔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 명주로 ‘호상옷’을 새로 짓고 있다. 호상옷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직접 준비해 두기도 하지만, 자식들이 환갑 때 지어서 드린다. (중략) 요즘은 재봉틀을 사용해 호상옷을 만들지만 예전에는 손바느질로 지었다. 바느질할 때도 매듭을 짓거나 뒷바느질은 절대 삼갔다. 매듭을 짓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맺힌 한을 풀고 가라.’는 산 자의 염원이며, 뒷바느질을 않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저승으로 잘 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sup>14)</sup> ‘호상옷’ 재료는 주로 삼베와 명주를 쓰는데, 명주를 최고로 친다. “무명이나 모시, 화학 섬유는 절대 호상옷의 재료로 써서는 안 된다. 무명옷은 시신이 썩을 때 시신을 새카맣게 만들고, 모시를 쓰면 자손들의 머리에 새치가 생기게 하며, 화학 섬유를 쓰면 시신이 잘 썩지 않는다고 해

13) 김경생의 구술 자료는 강정희·김순자(2009), 김정순·고순여·홍진규의 자료는 김순자(207, 2008, 2012)를 참고하였다.

14) 김순자, 『제주의 삶과 문화를 잇는 사람들-와치와 바치』, 도서출판 각, 2006, 237쪽.

서 피한다.”<sup>15)</sup>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공단(貢緞)이나 명주(明紬) 같은 견직물과 모시·삼베[麻]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빨리 썩는 것이 좋고 하여 모시나 삼베[麻布]를 많이 사용”<sup>16)</sup>해 제주의 습속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호상옷’은 윤달에 많이 짓는다.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아무 탈이 없고, 이때 ‘호상옷’을 지어 두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신이 있다.<sup>17)</sup> ‘호상옷’을 미리 지을 때는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하는데, 뱀날이나 쥐날, 본명일에는 짓지 않는다.<sup>18)</sup> 좁이 생겨 구멍이 난 것을 입히면 자손 대에 좋지 않고, 쥐가 쏘아 구멍이 난 ‘호상옷’을 입히면 도둑질 하는 자손이 태어난다는 속신 때문에 기피한다.

제주 지역의 ‘호상옷’은 남녀에 따라 의복 종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갓은수의’에는 차이가 없다. ‘호상옷’의 가짓수는 시신을 염습할 때 필요한 ‘옷가지(속옷, 바지,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 장옷, 도포, 보선, 허리띠 따위)’와 그에 따른 ‘갓은수의(지금, 천금, 검은호상, 엄두, 신발, 명정 따위)’를 합쳐 30가지 가까이 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초소렴’과 ‘대소렴’의 과정을 거친다. ‘초소렴’은 시신의 몸이 오그라들지 않게끔 배로 간단하게 묶는 절차이고, ‘대소렴’은 시신에 ‘호상옷’을 입히고, 관 안에 시신을 넣는 과정을 말한다.

## 2. ‘호상옷’의 종류와 명칭

### 1) 옷가지

#### ①상의-속적삼, 적삼, 속저구리(속저고리), 저구리(저고리)

‘속적삼, 적삼, 속저구리(속저고리), 저구리(저고리)’는 제주 지역에서 전래되는 ‘호상옷’의 상의 명칭이다. 남자의 경우는 ‘적삼’을 입히고, ‘저고리’를 입히면 된다. 적삼은 홑으로 만든다. 여자의 경우는 ‘속적삼,

15) 김순자, 앞의 책, 234쪽.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3권, 1991, 268쪽.

17) 위의 책, 237쪽.

18) 강정희·김순자,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호상옷』,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09, 132쪽.

적삼, 속저고리, 겹저고리’ 순으로 입혀 남자보다 여자 옷의 가짓수가 많다. ‘속저고리’는 적삼 대신에 입히는 옷으로 ‘겹저고리’와 달리 동정을 달지 않는다. 주로 명주나 삼베로 만든다. 예전에는 물색저고리도 입혔으나 지금은 흰색 명주로 만들어 입힌다. ‘속적삼’과 ‘적삼’은 홑으로 만들지만 ‘저고리’는 안에 솜을 넣어서 만든다. 『사례편람』, 『조선재봉전서』 등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는 저고리 3개, 치마 2개를 입히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저고리를 2개를 입히는 것이 다르다.

방언형에는 ‘저고리’라는 명칭 대신에 ‘저구리’ 형태도 나타나는데, 이는 『역어유해』(상 45)의 ‘저구리 옷: 小襖子’와 『한중록』(14)의 ‘저구리를 넘으시고’의 ‘저구리’가 단모음화한 형태로 제주도방언에 옛말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조오례의』의 ‘한삼’은 ‘적삼’의 의미로 쓰였다.

## ②하의-속중의(점벙이, 정벙이, 속곳), 중의, 바지, 소중의, 단속곳, 굴중의, 속치메, 겹치메

‘속중의, 중의, 바지, 소중의(속곳), 단속곳, 속치메, 겹치메’는 시신의 하의에 입히는 옷이다. 남자의 경우, ‘속중의, 중의, 바지’ 순으로 입히는데, ‘속중의’는 맨 안에 입히는 옷이다. ‘속중의’라는 말 대신에 지역에 따라서 ‘점벙이, 정벙이, 속곳’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속중의’라는 어휘 대신에 ‘팬티’나 ‘속살마다’처럼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자의 경우는 ‘소중의(속곳), 단속곳, 굴중의, 속치메, 겹치메’ 순으로 입힌다. ‘소중의’는 맨 안에 입는 속옷으로 사람에 따라서 ‘속곳’이라고도 한다. ‘굴중의’는 통이 ‘굴’처럼 넓은 중의이며, ‘소중의’는 ‘속중의’의 ‘속’에서 ‘ㄱ’이 탈락한 어형으로, 지역에 따라서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소중의’는 여성의 속곳을 일컬을 때만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단속곳’은 ‘소중의’ 위에 입히는 속옷으로 ‘속치마’ 대신에 입혔다. ‘단속곳’ 대신 ‘속바지’를 입힌 후에 그 위에 ‘속치메, 겹치메’ 순으로 입히기도 한다. ‘치메’는 표준어 ‘치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③겉옷-창옷, 도복(도폭, 큰옷), 장옷

‘창옷, 도복, 장옷’은 상하의를 입힌 후에 맨 위에 입히는 겉옷이다. 남자 시신에는 ‘창옷’을 입힌 후 ‘도복’을 입히고, 여자 시신에는 ‘장옷’을 입힌다. ‘창옷’은 ‘도복’ 안에 입는 옷으로 표준어 ‘소창옷’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도복’은 ‘도폭, 큰옷’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도포(道袍)’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도복’은 예전에 남자들이 통상 예복으로 입었던 겉옷으로, 소매가 넓은 ‘두리소매’에 등 뒤에 길게 늘어뜨리는 ‘엽을복’이라는 띠 폭을 대서 만든다. 반면 ‘창옷’의 소매는 넓지 않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 ‘도복’ 위에는 ‘띠’를 맨다.

‘장옷’은 여자 시신에게 맨 마지막에 입히는 겉옷이다. 예전에는 시집 갈 때 입었던 ‘원삼’이나 초록색 옷감에 자주색 깃과 끝동 고름을 단 ‘장옷’을 ‘호상옷’으로 입혔는데, 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시신의 뼈에 물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요즘은 흰색 명주로만 만들어 입힌다. 위의 ‘저고리, 바지, 적삼, 점벙이, 단속곳’ 등과 달리 겉옷은 한자어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상례비요』의 ‘장오자[長昐子]’가 ‘장옷’의 한자어 명칭이다.

④기타-훈삼(한삼), 과두, 보선, 다님, 행경

‘훈삼’은 여자들의 손을 가리기 위해서 소매 끝에 다는 물건이다. 달리 ‘한삼(汗衫)’이라고도 한다. ‘훈삼’은 ‘손을 가리기 위하여서 두루마기, 소창옷, 여자의 저고리 따위의 윗옷 소매 끝에 흰 형겘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다. 혼례 때에는 장옷에 달았지만, ‘호상옷’에서는 보통 적삼에 단다. ‘과두’는 ‘과도, 과디, 튼허리, 군허리’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여자 시신에게 ‘치마저고리를 입힌 다음에 허리가 보이지 않게 감추는 싸개’다. ‘과두’는 문헌어 ‘과두(裹肚)’가 그대로 쓰인 경우로, ‘염할 때 시체의 배를 싸는 데 쓰는 수의’다. 천을 겹으로 해서 만든다.

‘과두’는 ‘수의’ 옷가지가 처음 소개된 『국조오례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어휘다. 『조선재봉전서』에는 ‘복과’가 허리띠의 의미로 ‘남자수의’에 올라 있다. 『침선장』에는 크기만 다를 뿐 남녀 공히 사용하는 ‘배 싸개’로 과두를 소개하고 있다.

‘보선’은 ‘버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수의’ 명칭으로 문헌에 ‘버

선'이라는 고유어가 사용된 것은 『조선재봉전서』이며, 그 이전에는 한자어 ‘말(襪)’이 사용되었다. ‘보선’은 겹버선이나 솜버선으로 만드는데 속에는 ‘명주솜’이나 창호지를 넣어 만들었다. 면을 사용하면 시신의 뼈가 검게 변한다는 속설 때문에 제주에서는 ‘목화솜’을 쓰지 않는다.

‘다님’과 ‘행경’은 남자 바지에 소용되는 물건이다. ‘다님’은 표준어 ‘대님’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역어유해』(상: 45)의 ‘小帶子 {다님} 끈’과 『한중록』의 ‘옷골흙 다님 띠기신지 다하야 드리니’에서 확인된다. 『읍혈록』에는 ‘다임(多衽)’, 『조선재봉전서』에는 ‘대님’이 쓰였다. 제주 지역에서는 ‘다님, 다림, 땡김’ 형태로 나타난다. ‘행경’은 ‘바지나 중의를 입을 때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으로 표준어 ‘행진(行纏)’에 대응한다. 『상례비요』 등의 ‘늑백(勒帛)’이 ‘행경’에 해당한다.

## 2) 갓은수의

여기에서 ‘갓은수의’는 시신에 사용하는 입관할 때까지 소용되는 옷가지를 제외한 물건을 말한다. ‘호상옷’의 명칭 대부분이 고유어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갓은수의’ 관련 어휘는 ‘엄두’, ‘악수’, ‘지금’, ‘천금’, ‘호상’처럼 한자어 사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①설멩지, 설명주, 멩지솜

‘설멩지, 설명주, 멩지솜’은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서 늘여 만든 솜’을 말한다. 표준어 ‘풀솜’ 또는 ‘명주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설멩지’는 ‘호상옷’이나 베개, 버선 등의 속에 넣거나 시신의 눈과 코, 귀 등 구멍을 막고 턱 밑을 받칠 때 사용한다. 또 관의 빈 공간을 채우는 ‘보공’으로도 사용한다. 『국조오례의』에 보면, ‘설멩지’라는 명칭 대신에 ‘충이(充耳)’가 보인다. ‘충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염습(殮襲)할 때에, 죽은 사람의 귀를 솜으로 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충이’는 ‘귀 등을 막는 솜’을 일컫는 용어로 쓰였다. ‘설멩지’는 한자어 ‘雪綿子’에서 온 말이다. 『읍혈록』에는 ‘雪綿子’와 ‘充耳’가 혼효되어 나타난다.

②엄두, 엄디, 엄도, 엄뒤저고리, 두룽머리

‘엄두’는 ‘시신의 머리를 싸는 물건’이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엄두, 엄디, 엄도, 엄뒤저고리, 두룽머리’처럼 다양한 어형이 나타난다. ‘엄두(掩頭)’는 한자어 {엄(掩)+도(두, 디)(頭)} 구성의 어휘다. 『사례편람』에 여자의 머리싸개로 ‘엄(掩)’이 소개되어 있는데, ‘엄’이 바로 ‘엄두’에 해당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남녀 공용으로 쓴다. 연구자에 따라 ‘엄뒤저고리’는 남자의 복건에 해당되는 여모이고, ‘검은호상’은 남자의 복건에 해당하는 얼굴싸개<sup>19)</sup>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의 조사 결과 제주 지역에서 ‘엄두’는 ‘검은호상’ 전에 시신의 머리를 싸는데 사용되는 물건으로, ‘검은호상’과 마찬가지로 남녀 공용의 ‘갓은수의’의 하나다. ‘두룽머리’는 ‘명주천이나 베 등으로 두른 머리’라는 의미로, ‘머리싸개’에 해당한다. 『읍혈록』에는 ‘여자수의’에 ‘과두(裹頭)’가 올라 있고, 『조선재봉전서』에는 ‘머리 싸는 보’라는 설명과 함께 ‘남자수의’에 ‘과두’를 소개하고 있다. 『침선장』에는 ‘갓은수의’로 명목(幞目)이 소개되었다.

③검은호상, 호상, 복감티

‘검은호상·호상·복감티’는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명주로 만든 모자’를 말한다. 모자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 (가) 머리에 씌우는 게 호상. 검은 걸로만 허는 거. 죽은 후제 머리에 씌왕 매장허주기. 그걸 호상그음이렌 한다.(한경면 조수2리)
- (나) 호상힐 검은색 멩지 엇이민 흰 멩지를 연기에 그을린 다음 사용허연게. (한경면 조수2리)
- (다) 검은호상 안넨 붉은 멩지로 허곡 우의 검은 멩지로 허난 검은호상엔 허영 영 뒤에 멩기 쇠 개 들록 따로 영 특받이 채울 거 허곡.(애월읍 수산리)

(가)~(다)에서 보듯, ‘호상옷’ 관련 어휘 중 유일하게 ‘호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은호상’은 ‘호상옷’의 대표격이다. 검은 명주를 ‘호상그음’(호상감)이라고 하는데 검은 천이 없을 때는 ‘흰 명주를 연기에 그을려서’ 사용하였다. 안에는 붉은색, 겉은 검은색 명주

19) 고부자, 앞의 논문, 109쪽.

로 만드는데, 지역에 따라서 ‘복감티’라고 부른다. ‘복감티’는 {복(服)+감티(감투)} 구성의 어휘다. ‘검은호상’은 ‘엄두’로 머리를 쓴 후에 그 위에 씌우는 모자로, 한자어 ‘면모, 떡목’<sup>20)</sup>의 역할을 하는 부속물로 보인다.

#### ④악수, 왁수, 손싸개, 손장갑, 손마개

‘악수(握手)’는 ‘시신의 손에 끼우는 장갑’으로, 『국조오례의』에서 보이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용어다. 제주에서는 ‘악수, 왁수’처럼 한자어로 표현도 하지만 ‘손싸개’, ‘손장갑’, ‘손마개’처럼 고유어로 바꿔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표준어 ‘악수(握手)’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예전에는 “‘악수’를 곁은 검정, 안은 빨강 명주”<sup>21)</sup>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흰 명주로 만들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사전에는 ‘악수’를 ‘소렴(小殮) 때에 시체의 손을 싸는 형겅.’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주에서 수의를 입히는 일은 소렴에 하지 않고 대렴에 한다는 점이 다르다.

#### ⑤대림포, 두름포, 매장포, 매장베, 베

‘대림포, 두름포, 매장포, 매장베, 베’는 시신에 ‘호상옷’을 다 입힌 다음에 몸 전체를 싸는 보를 말한다. 표준어 ‘염포(殮布)’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삼베나 명주를 이용해 만든다. ‘대림포’는 {대림(대렴)+포(布)}, ‘두름포’는 {두르-+-口+포}, ‘매장포(베)’는 {매장+포(布), 매장+베} 구성으로 매장할 때 시신을 싸는 보를 말한다. ‘포(布)’는 ‘베’를 의미하는 한자어다. ‘베’는 대렴을 끝낸 후 시신을 묶는 기다란 천으로, 지역에 따라서 7군데, 또는 12군데 묶는다.

#### ⑥지금, 천금

‘지금’과 ‘천금’은 시신의 ‘요’와 ‘이불’에 해당하는 어휘다. ‘지금’은 표준어 ‘지요[地褥]’, ‘천금’은 ‘천금(天衾)’에 해당하는 방언형인데, ‘지

20) ‘명목(瞑目), 면모, 떡목’은 문헌에서 소렴(小殮)할 때 ‘시체의 얼굴을 싸매는 형겅’을 일컫는 말이다. 국어사전 등에는 ‘명목’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고, ‘면모’와 ‘떡목’만 올라 있다. 문헌 속의 ‘명목(瞑目)’은 ‘떡목(瞑目)’의 오키로 보인다.

21) 고부자, 앞의 논문, 109쪽.

금’처럼 ‘이불 금(衾)’이 ‘요’를 뜻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 특이하다. ‘지금’과 ‘천금’은 안에 명주솜을 넣어 만든다.

(라) 지금 천금은 예전에는 물색으로 했으나 지금은 흰색 명주로 하는데, 남자는 초록색 깃을 달고, 여자 이불은 붉은색 깃을 달아서 구분한다.(한경면 조수2리)

(마) 지금은 검정 명주로, 천금은 붉은 색으로 만들었다.(에월읍 하귀2리)

(라)~(마) 보면, 시신의 요와 이불은 물색으로 만들다가 ‘호상웃’을 흰색 명주로 만드는 것처럼 흰색 명주로 만들고 있다. 또 색깔로 남자 것과 여자 것을 구분하는데, 요즘도 남자 이불에는 ‘초록색 깃’을 달고, 여자 것은 ‘붉은 깃’을 달아 만든다. 『읍혈록』에는 ‘요[褥]’, 『조선재봉전서』에는 구개음화 이전의 ‘디요’, 『침선장』에는 ‘지요[地褥]’가 올라 있다.

### ⑦베개

‘베개’는 시신의 머리를 괴는 물건이다. 명주나 베를 이용하여 겹으로 만든다. 안에는 ‘설멩지’(명주솜)를 넣거나 없을 때는 모래나 찰흙, 재, 숯가루를 넣어 만든다. 『읍혈록』에 한자어 ‘枕’이라 표기되던 것을 『조선재봉전서』에서는 고유어 ‘베개’가 쓰였다.

### ⑧주멩기

‘주멩기’는 표준어 ‘주머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주멩기’는 머리 카락과 두 손톱과 두 발톱을 깎아 넣는 용도로 모두 5개가 필요하다. 표준어 ‘조발낭(爪髮囊)’이나 ‘오낭(五囊)’에 해당한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조발낭’과 ‘오낭’은 ‘염습할 때에 시신의 손발톱을 깎고, 흠어진 머리카락을 주워 담아, 관의 한 구석에 넣는 조그마한 주머니로, 붉은 색으로 만든다. 이 주머니를 제주에서는 ‘소랑’<sup>22)</sup> 또는 ‘오낭(五囊)’과 ‘오낭(汚囊)’<sup>23)</sup>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고유어 ‘주멩기’로 대체되어 쓰

22) 김영돈, 「제4절 통과의례」,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23쪽.

23) 고부자, 앞의 논문, 109쪽.

이고 있다.

(바) 주멧기는 다섯 갓 놓민 그 사람이 죽으민 손톱, 발톱 꺾아 놓고, 머리 끊어 놓고, 또 이제 담배 놓고, 또 노갓돈 놓고 그러는 게 다섯 개가 들어가.(제주시 삼도1동)

(바)의 예문을 보면, 주머니 다섯 개에는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담배, 노갓돈’을 넣는다고 하여 앞의 ‘조발낭’의 의미와는 차이난다. 시대가 흐르고, 집안에 따라 ‘주멧기’의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읍혈록』에는 ‘囊 六’이라고 해서 여섯 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주멧기’는 흰색 명주나 창호지 또는 삼베로 만든다. 유림들 사이에서 쓰이던 한자어 ‘오낭’ 등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과 수의가 민간에까지 이어지면서 고유어 ‘주멧기’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 ⑨신발, 신, 저승신

‘신발, 신, 저승신’은 ‘시신이 저승에 갈 때 신고 가는 신’이다. 표준어 ‘습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국조오례의』 등에 ‘이(履)’라는 한자어가 쓰이다가 『읍혈록』에 남자 수의에 ‘운혜(雲鞋)’<sup>24</sup>, 여자 수의에 ‘이(履)’라고 올라 있고, 『조선재봉전서』에는 ‘신’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요즘은 고유어 ‘신’을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저승신’을 백지 또는 물색 명주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보통 흰색 명주로 만든다.

#### ⑩동심줄

‘동심줄’은 오색실로 매듭을 지어 만든 물건이다. ‘동심줄’은 검은명주와 노란명주 위에 붙이는데, 대렴을 한 시신의 가슴 쪽에 놓는다. 동심줄은 우물정자로 뒷면에는 열십자 모양으로 맺는데, 흰백상에 두었다가 하관 때에 가슴 쪽 관 위에 두고 묻는다. ‘흰백상’은 ‘흰백을 모서두는 상

24) 문옥균 외, 앞의 책, 52쪽에서는 ‘운혜’를 ‘코에 구름 무늬를 놓은 비단신’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여자들이 신는 마른신의 하나. 앞코에 구름무늬를 놓는다.’고 설명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자’로, 표준어 ‘혼백상자’ 또는 ‘혼상(魂箱)’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제주도방언의 ‘호상옷’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주도방언의 ‘호상옷’ 관련 어휘

구분	남자 수의	여자 수의
상의	적삼, 저고리(저구리)	속적삼, 적삼, 저고리(저구리, 속저고리, 걸저고리), 혼삼(한삼)
하의	속중의(점뱅이, 정뱅이), 중의, 바지	소중의(속곳), 단속곳, 치메(속치메, 걸치메), 허리띠, 과두(과도)
겉옷	창옷, 도복(도푼), 허리띠	장옷
기타	다님, 행정	
깃은수의	업두(업도, 업띠, 업뒤저고리, 두툼머리), 지금, 천금, 대립포(두릅포), 손수건, 베개, 설멩지(설멩주, 멩지솜), 동심줄	검은호상(호상, 복갑티), 악수(악수, 손싸개, 손마개), 주멩기(오낭, 소낭, 소랑), 보선, 신발(신, 저승신), 동심줄

#### IV. ‘호상옷’의 부분 명칭

‘호상옷’의 부분 명칭은 ‘옷가지’ 명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유어로 되어 있다. 부분 명칭 가운데는 옛 어형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특이 어형 가운데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형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어 어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부분 명칭은 ‘호상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사된 어휘를 ‘상의’와 ‘하의’로 나눠 특이 어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1) 상의

###### ①의몸, 이몸, 잇몸

‘의몸, 이몸, 잇몸’은 ‘저고리나 장옷, 도포 따위의 소매나 깃 등을 뺀 몸통의 부분’을 말한다. {의(衣)+몸} 구성으로, ‘의몸’은 옷의 품에 해당한다. 『우리말큰사전』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 ②스미, 질스미, 꾀동

‘스미’는 표준어 ‘소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질스미’는 {질+스미} 구성으로, 소매 길이가 짧을 때 다른 천으로 길게 이어 붙인 소매를

말한다. 『우리말큰사전』에 ‘길소매’가 ‘화장’의 전남 방언으로 올라 있는데, 여기에서의 ‘질스미’는 ‘화장’의 의미와는 다르다. ‘화장’은 ‘저고리 깃고대 중심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꽃동’은 ‘여자의 저고리 소매부리에 댄 다른 색의 천’을 말한다.

### ③깃, 목고대

‘깃’은 ‘저고리나 도포 따위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을 말한다. ‘깃’은 표준어 ‘깃’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목고대’는 {목+고대} 구성으로, 표준어 ‘깃고대’의 의미로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다. ‘깃고대’는 ‘옷깃의 뒷부분. 특히 깃 달 때에 목 뒤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른다.

### ④섭, 압섭, 안압섭, 밧압섭

‘섭’은 ‘저고리나 도포 따위의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형꼴’을 말한다. 표준어 ‘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아학편』(상 12)의 ‘옷섭 금:衿’의 ‘섭’의 단모음화한 ‘섭’이 제주도방언에 남아 있는 경우다. ‘압섭’은 표준어 ‘앞설’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한청문감』(11: 7)의 ‘압섭:衣前襟’이 단모음화한 어형이다. ‘안압섭’은 표준어 ‘안설’, ‘밧압섭’은 ‘겉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즉, 설의 속으로 여머지는 쪽을 ‘안압섭’, 설의 바깥쪽을 ‘밧압섭’이라고 한다. ‘밧압섭은 흐쓸 넓게 허고 안압섭은 좁게 허곡.’(제주 삼도1동)의 구술 자료에서 보이듯, ‘안압섭’이 안으로 여머지기 위해서는 ‘밧압섭’보다 작게 재단해야 한다. 문헌에는 ‘안섭’<sup>25)</sup>과 ‘것섭’<sup>26)</sup>이 보인다.

### ⑤곰, 큰곰, 젓곰, 진곰, 짝른곰

‘곰’은 표준어 ‘고름’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고름’을 제주에서는 ‘고름, 골름, 골흙’이라고 한다. ‘큰곰’은 ‘젓곰’에 상대해서 긴 고름을

25) ‘깁 적삼 안섭히 되어 존득존득 대히고지고(古時調. 각시년. 靑丘). 남광우 편저, 『교학 고어사전』, (주)교학사, 1997/1971, 1021쪽에서 재인용.

26) 것섭: 大襟同文解 上 56), 옷것섭: 大襟譯解補 40). 남광우 편저, 위의 사전, 70쪽에서 재인용.

칭하는 말이다. ‘큰곰’은 옷의 겉에 다는 고름으로, ‘젓곰’보다 크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고, ‘젓곰’은 옷 안에 달아 옷의 안깃을 여밀 때 사용하는 끈이다. 표준어 ‘안고름’ 또는 ‘속고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반대로 겉깃을 여며 매는 옷고름을 ‘겉고름’ 또는 ‘겉옷고름’이라고 한다.<sup>27)</sup> ‘젓곰’은 {젓+곰}으로 분석되는데, 젓가슴 쪽에 붙여서 생긴 명칭으로 보인다. ‘진곰’은 ‘저고리나 도포 따위의 옷의 깃 끝과 그 맞은 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형질 가운데 긴 끈’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쯔른곰’이라고 한다. ‘진곰’은 {질-+ㄴ+곰}, ‘쯔른곰’은 {쯔르-+ㄴ+곰}으로 분석된다. ‘곰’은 ‘고흠’에서 ‘ㅎ’이 탈락하고 ‘곰’으로 축약한 형태다. 『왜어유해』에 ‘고름’<sup>28)</sup>, 『훈몽자회』에 ‘골흠, 고흠, 긴흠’<sup>29)</sup>형이 보인다.

#### ⑥바대, 저깡바대, 짓바대

‘바대’는 ‘홀적삼이나 고의 따위의 잘 헤어지는 곳에 안으로 덧대는 형질 조각’을 말한다. 표준어와 같다. ‘바대’는 홑옷에서 바느질이 잘 헤어지거나 약한 부분이 덧 되는 형질 조각으로, ‘호상옷’의 홑옷인 ‘창옷’과 ‘적삼’ 등에 필요하다.

‘저깡바대’는 홑으로 만드는 ‘적삼’이나 ‘창옷’의 겨드랑이 쪽에 덧대는 천을 말한다. {저깡+바대} 구성의 ‘저깡바대’는 표준어 ‘겉바대’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저깡이’의 어근 ‘저깡’에 ‘바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다. ‘저깡이’는 지역에 따라서 ‘즈깡이, 즈깡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겨드랑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짓바대’는 ‘홑옷의 고대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넓게 덧대는 형질’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바대’의 옛말로 ‘깃바대’가 올라 있는데, ‘깃바대’가 구개음화한 어형 ‘짓바대’가 제주도방언에 남아 있는 경우이다. 『사성통해』(下 35)의 ‘깃바대’ 외에도 ‘깃바디’<sup>30)</sup>도 올라 있다.

2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겉옷고름, 겉오름, 안옷고름’을 표제어로 올라 있지만 ‘안고름’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8) 고름 반: 襟倭解 上46). 남광우 편저, 앞의 사진, 96쪽에서 재인용.

29) 고흠 及 긴흠 皆曰帶子(訓蒙東中本中23 帶字 註, 골흠 及 긴흠: 皆曰帶子(訓蒙觀山本 中11 帶字 註, 남광우 편저, 위의 사진, 105쪽·112쪽에서 재인용.

‘등바대’는 ‘어갯바대’라고도 한다. ‘저깡바대’와 ‘깃바대’도 새로 발굴된 어휘다.

⑦진동, 동전

‘진동’은 소매에서 깃과 닿는 부분의 폭이나 넓이를 말한다. 예전부터 ‘진동’이라고 쓰고 있다. ‘동전’은 ‘한복의 저고리의 깃 위에 조붓하게 덧대어 꾸미는 하얀 형겔오리’를 말한다. ‘동전’은 저고리에는 달지만 ‘적삼’에는 달지 않는다. ‘동전’은 표준어 ‘동정’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⑧엽을복

‘엽을복’은 ‘남자의 겹옷인 도포 등 뒤에 덧붙여 길게 늘어뜨린 천’을 말한다.

(사) ‘깃바대에 이디 엽을복이라고. 홉 폭을 둘에 갈라서 요건 등실밥인디 엽을복을 이딜 제여가지고 박지 안 해서 엽을복이라.(제주시 삼도1동)

예문 (사)에서 보이듯이, ‘엽을복’은 ‘깃바대’ 즉, ‘등바대’에 한 폭의 옷감을 가운데로 두 개로 나눠 양 어깨 뒤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붙이고, 옷에 박지 않는다. ‘엽을복’은 {엽+을+복}의 구성으로, 옷 뒤에 엽은 것과 같은 늘어뜨린 천 모양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2) 하의

①복, 폭, 치마폭, 지리기

‘복’은 ‘하나로 연결하려고 같은 길이로 나누어 놓은 종이, 널, 천 따위의 조각’을 말한다. 치마나 바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천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제주도방언에서는 ‘폭(幅)’의 옛말인 ‘복’과 ‘폭’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치마폭’은 ‘피륙을 잇대어 만든 치마의 너비’를 말한다. ‘지리기’는 ‘길이’, 즉 ‘기장’의 방언형이다. ‘호상옷’의 ‘치마폭은 ‘짜그르 게(홀수)’ 한다고 해서 일곱 폭으로 만든다.

30) 깃바닥: 護肩(譯解補 41). 남광우 편저, 위의 사전, 218쪽에서 재인용.

②허리, 허리곱, 단

‘허리’는 ‘바지나 치마, 고의 따위의 맨 위가 되는 부분’을 말하고, ‘허리곱’은 ‘치마의 허리에 다는 고름’이다. ‘단’은 ‘옷자락 끝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어 붙이거나 감친 부분’을 말한다. ‘호상옷’의 ‘중의’는 단을 꺾어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단이 있지만, 바지는 천의 안감과 겉감을 함께 어우러지게 재단하기 때문에 단이 없다.

③상복, 진셋복, 죽은셋복

‘상복’은 ‘남자의 한복 바지나 고의 따위의 허리에 달아 사복을 대는 긴 형겅’을 말한다. ‘상복’은 {상(上)+복} 구성으로, ‘상’은 바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복’은 ‘폭’의 의미이다. 표준어 ‘마루폭’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진셋복’은 ‘남자 한복 바지에서 마루폭과 마루폭 사이에 댄 큰 폭’으로, 왼쪽 마루폭에 대는 ‘사폭’을 말하고, ‘죽은셋복’은 ‘바지나 고의 따위의 오른쪽 마루폭에 대는 형겅’을 말한다. ‘진셋복’<sup>31)</sup>은 표준어 ‘큰사폭’, ‘죽은셋복’은 ‘작은사폭’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셋복’은 표준어 ‘사폭’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남자의 한복 바지나 고의에서, 허리와 마루폭 사이에 잇대어 붙이는 네 쪽의 형겅’을 말한다.

④소중의바대, 강알바대

‘소중의바대’는 ‘소중의’ 곧 ‘속곳의 밑에 덧붙이는 천’을 말한다. ‘강알바대’는 {강알+바대} 구성으로 ‘중의나 속곳의 살 부분에 덧대는 형겅조각’을 말한다. ‘강알’은 ‘살’의 방언형이다. ‘소중의바대’나 ‘강알바대’는 표준어 ‘밑바대’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새로 발굴된 어휘다.

⑤므작단추

‘므작단추’는 ‘매듭을 지어 만든 형겅 단추’를 말한다. ‘므작’은 표준어 ‘매듭’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모작단추’는 지역에 따라서 ‘별므작’ 또는 ‘들마기’라고 한다. 여성들의 속곳인 ‘소중의’를 여밀 때 사용하는

31) 현평효 외의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는 ‘진셋복’을 ‘큰셋복, 큰삿복’으로 나와 있다.

형깁단추다.

(아) 깁작단추는 세 개를 다는데 양반들이 입는 속곳에는 하나만 달았다(제주 삼도1동).

예문 (아)를 보면, ‘깁작단추’는 여성들의 속곳인 ‘소중의’에 달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입는 속곳에는 3개를 다는 데 반해 양반들이 입는 속곳에는 하나만 달아 구별하기도 했다.

## V. ‘호상옷’의 바느질법 관련 어휘

### 1. 옷감과 도구 관련 어휘

#### 1) 옷감

##### ① 멩지, 검은멩지, 노랑멩지, 붉은멩지, 양단, 설멩지, 삼베

‘멩지, 검은멩지, 노랑멩지, 붉은멩지, 양단, 설멩지, 베’는 ‘호상옷’ 관련 재료다. 시신에 입히는 ‘호상옷’은 ‘멩지(명주)’와 ‘양단’, ‘삼베’를 재료로 해서 만든다. 제주 지역에서는 ‘호상옷’ 재료로 면이나 모시, 나일론은 쓰지 않는다. ‘호상옷’ 재료로 ‘면’을 쓰면 시신이 까맣게 된다고 하고, ‘모시’로 ‘호상옷’을 지으면 자손의 머리가 허영게 쉰다는 속설 때문에 기피한다. ‘나일론’은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해서 꺼린다. 예전에는 물색 명주도 사용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흰색 명주나 삼베로 만든다. ‘설멩지(풀솜)’는 시신의 눈과 코 등의 구멍을 막거나 옷감 안이나 이불 등의 안에 넣는 재료이다. 관을 채우는 보공으로도 사용된다. ‘삼베’는 ‘호상옷’의 재료로 쓰는 한편 시신을 싸는 ‘대림포(대림금)’와 시신을 묶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 ②백지, 오색실, 창호지, 산디찍

‘백지, 오색실, 창호지, 산디찍’은 ‘호상옷’의 ‘갓은수의’에 필요한 재료이다.

2) 도구

①자, ㄹ세, 바농, 썰, 골미

‘자, ㄹ세, 바농, 썰, 골미’는 ‘호상옷’을 마름질하거나 바느질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다. ‘ㄹ세’는 표준어 ‘가위’, ‘바농’은 ‘바늘’, ‘썰’은 ‘실’, ‘골미’는 ‘골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②다리웨, 윤디, 윤디판, 화리

‘다리웨, 윤디, 윤디판, 화리’는 ‘호상옷’을 만들고 난 후 마무리할 때 다리질에 사용되는 도구다. ‘다리웨’는 표준어 ‘다리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문헌어 ‘다리오리, 다리우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윤디’는 ‘인두’, ‘윤디판’은 ‘인두판’, ‘화리’는 ‘화루’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2. 바느질법 관련 어휘

1) 재단

①물다, 물르다, 기치다

‘물다’, ‘물르다’는 ‘옷감 따위를 치수에 맞게 재거나 자르다’는 의미의 방언형이다. ‘호상옷’을 만들기 전에 재단할 때 하는 말이 ‘옷 물르다’이다. 문헌어 ‘믈르다, 믈르다’에 ‘ㄹ’음이 첨가된 형태가 방언형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기치다’는 ‘끊다’ 또는 ‘자르다’의 의미로, 옷감 따위를 자를 때 사용하는 방언형이다.

②수눅 새기다, 주름잡다, 고비치다, 꺼끄다

‘수눅 새기다’는 ‘버선 따위의 등을 꿰매서 솔기를 만들다’는 의미다. ‘수눅’은 ‘버선 따위의 꿰매 솔기’로, 버선은 수눅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신는다. ‘주름잡다’는 ‘옷의 폭 같은 것에 주름이 지게 하다’는 의미로, ‘호상옷’의 치마허리에 주름을 잡을 때 사용하는 어휘다. ‘고비치다’는 표준어 ‘곱치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천을 반으로 접어서 합칠 때 사용하는 어휘이고, ‘꺼끄다’는 ‘천 따위의 얇은 물체를 구부리거나 접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표준어 ‘꺾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중의’의 단을 꺾을 때 사용하는 어휘다.

## 2) 바느질법

### ①바느질, 손바느질, 뒷바느질, 텅침

‘바느질’은 표준어 ‘바느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손바느질’은 손으로만 하는 바느질을 말하고, ‘뒷바느질’은 바느질을 한 땀씩 잇대어 하는 ‘박음질’의 한 종류로 바늘을 앞 땀의 제자리에 꽂아 박는 바느질법이다. 달리 ‘텅침’이라고 한다. ‘뒷바느질’은 {뒤-+-스-+바느+질} 구성으로, 바늘땀이 뒤로 돌아가서 박음질하기 때문에 붙여진 바느질법이고, ‘텅침’은 ‘땀침’의 변이음으로, 표준어 ‘온땀침’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새 어휘다.

(자) 호상옷은 손바느질(손바느질)로 하는데, 뒷바느질도 아녀고 뜯어 고치지도 않는다.(제주시 삼도1동)

예문 (자)를 보면, 예전에는 시신이 입는 옷을 뒷바느질을 하거나 뜯어 고치지 않을 정도도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는데, 이는 영혼들로 하여금 이승에서의 아쉬움이나 미련을 남기지 말라는 산 자들의 간절함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 ②감치다, 박다, 시끄다, 호다

‘감치다, 박다, 시끄다, 호다’는 ‘호상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바느질법이다. ‘감치다’는 ‘바느질감의 가장자리나 솔기의 실을 풀리지 않게 용수철이 감긴 모양으로 감아 꿰매다’는 의미다. 보통 단을 만들 때 사용한다. ‘박다’는 ‘실을 곱걸어서 꿰매다’는 의미로, 바느질을 단단히 할 때 사용한다. ‘시끄다’는 ‘옷의 해지기 쉬운 부분이 쉽게 헤어지지 아니하게 다른 천을 대서 듬성듬성 꿰매다’는 의미로, 마름질한 옷감이 밀리지 않게 듬성듬성 해두는 바느질법이다. 표준어 ‘징그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호다’는 ‘형짚을 겹쳐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는 의미로, 표준어와 어형이 같다.

### ③줍다, 들다, 뭇다

‘줍다’는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꺾매다’는 의미의 방언형으로 표준어 ‘깎다’는 의미다. ‘들다’는 ‘물건을 일정한 곳에 붙이다’는 의미의 표준어 ‘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동전을 들다’, ‘막작단추를 들다’처럼 쓰인다. ‘뭇다’는 ‘노, 실,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만들다’는 의미의 방언형이다. ‘막작단추’나 ‘동심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어휘이다.

#### ④동근술

‘동근술’은 ‘옷 따위를 지을 때 두 쪽을 맞대고 꺾맨 후에 남은 시접을 하나로 감싸기 위하여 천을 세 번 감아서 둥그렇게 만들어 박는 바느질법’이다. ‘호상옷’ 가운데 훔웃인 ‘적삼’과 ‘창옷’ 따위의 두 쪽을 맞대고 꺾맨 후에 남은 시접을 하나로 동글게 박을 때 사용하는 어휘로, ‘동근 모양의 시접의 술’을 말한다. ‘동근술’은 {동글-+-.L+술}의 구성으로, 여기에서 ‘술’은 ‘술’의 이형태로, ‘술기’의 준말이다. 『한청문감』(11: 26) 등의 문헌에는 ‘술 붓치다’처럼 ‘술’형이, 『가례도언해』(2)에는 ‘숯’형이 나온다.

## VI.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방언에 나타난 호상옷 관련 어휘를 종류별 명칭, 부분 명칭, 바느질법 관련 어휘로 나눠 목록화를 하고, 관련 어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제주도방언의 ‘호상옷’ 관련 명칭을 ‘옷가지’와 ‘갓은수의’로 나눠 고찰한 결과, ‘호상옷’은 일상 옷 가운데 가장 갖춰 입었던 ‘혼례’ 때의 옷차림에다가 ‘대림’ 때 필요한 제구(諸具)인 ‘갓은수의’로 이루어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호상옷’이 간소화하고 있다.

둘째, 제주 지역의 ‘호상옷’ 관련 어휘 중 옷가지의 명칭은 한자어보다 고유어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갓은수의’는 예전처럼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한자어가 고유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과 손톱 등을 담은 ‘오낭, 소낭’은 ‘주맹기’라는 명칭으로, 얼굴 싸개인 ‘엄’은 ‘엄뒤저고리’, ‘과두

(裹肚)’는 ‘허리띠’, ‘악수(握手)’는 ‘손싸개’처럼 어형이 바뀌고 있다. ‘오냥’과 ‘소냥’과 같은 한자어는 유학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주로 써왔다고 한다면 시대가 흐르고 서민층으로 가면서 한자어 ‘오냥’ 등이 ‘주맹기’라는 용어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분 명칭 관련 어휘에서는 제주도방언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복(폭)’, ‘섭’, ‘질스미’, ‘바대’, ‘깃바대’ 등은 제주도방언의 큰 특징인 문헌어의 옛 어형을 확인할 수 있는 어휘다. 또 ‘의뎡’, ‘질스미’, ‘목고대’, ‘안압섭, 빗압섭’, ‘젓곰’, ‘진곰’, ‘저깡바대’, ‘엽을복’, ‘허리곰’, ‘소중의바대’, ‘강알바대’ 등은 다른 지역의 방언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어휘들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로, 새 어휘의 발굴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넷째, 바느질법과 관련한 어휘 가운데는 ‘손바농질, 뒷바농질, 멩침, 동근술’ 등 ‘침선’과 관련한 특이 어형도 새롭게 발굴되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제한된 지면으로 ‘염습’ 관련 어휘, ‘호상옷’과 관련한 금기어와 속담, 관용 표현 등을 다 다루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강정희·김순자,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호상옷』,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09.
- 고부자, 『濟州島民의 喪禮에 나타난 服飾-호상옷과 喪服』, 『제주도연구』 제2집, 1985.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1998.
- 김동욱·고부자, 『수의(호상옷)』,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김숙당, 『조선재봉전서』(영인본), 민속원, 1925/1995.
- 김순자, 『제주의 삶과 문화를 잇는 사람들-와치와 바치』, 도서출판 각, 2006.
- \_\_\_\_\_,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해녀 어부 민속주』, 국립국어원, 2007.
- \_\_\_\_\_, 『나, 육십육 년 물길허멍 이제도록 살안(제주시 이호마을 고순여 할머니 생애 구술)』,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1,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2008.
- \_\_\_\_\_,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나고나 가라(제주시 애월읍 수산마을 흥진규 할머니 생애 구술)』,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5,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2012.
- 김영돈, 『제4절 통과례』,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 김영숙 편저,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9.
- 김은정·임린 공저, 『역사속의 우리옷 변천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남광우 편저, 『교학 고어사전』, (주)교학사, 1997/1971.
- 문옥균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IV)-상례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권, 1991.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 현평호 외,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Abstract

## Study on the Vocabulary about Shroud in Jeju Dialect

Kim, Soon-Ja\*

‘Hosangot’, ‘sueui’ in standard Korean, is a garment or piece of cloth used to wrap a dead body and the terms are different from people and regions like ‘hosang’ or ‘jeoseungot’. In this study, the vocabulary about shroud is divided into some categories such as names, names of the parts of clothes, and how to sew, etc. to restore endangered Jeju dial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moreover, is to Korean-linguistically systematize and analyze the words. Here are the conclusions.

First, ‘hosangot’ in Jeju dialect means the most formal clothes for wedding ceremony with ritual utensils for shroud.

Second, there are more Korean native words for the clothing than sino-Korean words while words for ritual utensils are often sino-Korean. However, as time have changed, more Korean native words are used for the ritual utensils.

Third, some names of the parts of clothes are from document language and have special word forms,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Jeju dialect. It is meaningful to find these words as some of them are also especially novel and couldn’t be found in the Korean dictionary.

Fourth, there are some interesting new words about sewing such as

---

\*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sonbanongjil, dwitbanongjil, dengchim, donggeunsul’

It is shame that more words for a shroud, taboos and sayings could not be listed because of the limited pages. It is for the next study.

Key Words : Hosangot, Jeju dialect, Funeral rites, Corpse, How to sew.

교신 : 김순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8230호 국어문화원  
(E-mail : sj476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 08. 31.

심사완료일 2014. 10. 03.

게재확정일 2014. 10. 24.

